
1.	> 11	2
2.	> 06 , •	2
3.	> 16 ,	3
4.	> 09 ,	4
5.	> 07 ,	5

11



산청군 생비량면 봉사활동 산청군 생비량면은 국제로타리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 100여명 회원의 도움으로 지난 18일 산청군수(이재근)가 참석한 가운데 생비량면 일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8.2*5.6)cm

06

산청 생비량면, 의료·대청소 봉사

산청군 생비량면은 국제로타리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 100여명 회원의 도움으로 지난 18일 생비량면 일원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복지회관에서는 생비량면 내에 전문병원이 없어 진료를 미뤘던 주민들과 특히 농사철이라 병원에 진료 하러 갈 시간이 부족한 농민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진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섰고 평소 아팠던 허리 어깨 다리에 침을 맞고 의료상담을 하는 등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새봄을 맞이하게 됐다.

이 밖에도 독거노인 김길연외 3가구 및 마을경로당 5개소에 대청소를 실시하고, 생활이 어려운 7가구에 대해서는 반찬을 제공하는 등 참 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원경복 기자〉

(10.2*6.9)cm



산청군 생비량면, 신바람 나는 여성 노래교실 개강

산청군 생비량면(면장 이병렬)은 지난 19일 오후 8시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바람 나는 여성 노래교실' 개강식을 가졌다.

여성 노래교실은 3월 19일부터 7월 30일 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에서 9시 30분까지 생비량면 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산청/양성범기자 · 사진제공=산청군

(9.1*9.1)cm



산청군 생비량면, 신바람 나는 여성 노래교실 개강

산청군 생비량면은 지난 19일 오후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바람 나는 여성 노래교실’ 개강식을 가졌다.

생비량면은 참여 여성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노래강습으로 교육을 진행해 여성들의 삶의 여유를 찾아주고, 노래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주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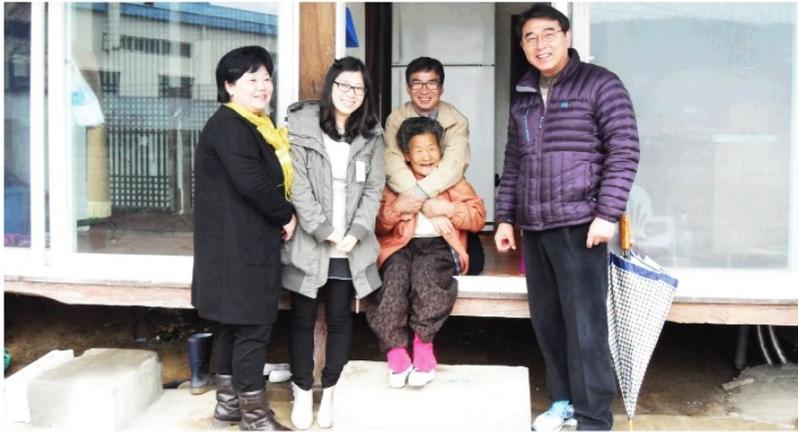
또한 생비량면 복지회관에서는 건무도교실(매주 월·목 오전 10시 30분), 건강체조교실(매주 월·목 오후 1시 30분), 스포츠댄스(매주 화·금요일 저녁 8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이병렬 생비량면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 노래교실은 오는 7월 30일 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생비량면 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노종욱기자nju@gnynews.co.kr



산청군 생비랑면은 해피데이 사랑나눔으로 75번째 생신을 맞이하신 봉두마을 장맹례 할머니를 방문했다.

산청 생비랑면, 해피데이 사랑나눔 운영

산청군 생비랑면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피데이 사랑나눔으로 지난 23일 75번째 생신을 맞이하신 봉두마을 장맹례 할머니를 방문했다.

장 할머니는 “먼곳에 있는 아들보다 낫다”고 말하며 직원들 한명 한명의 손을 꼭 잡아줬다.

‘해피데이’사랑나눔은 지난 2월부터 동거가족이 없는 저소득 노인 중 10명을 선정해 마을 담당 공무원 7명과 사회복지담당자가 생일 당일 가정을 방문, 1일 자녀가 돼 드리고 생활고충을 상담하는 등 2012년 생비

랑면 특수시책 중 하나로 혼자 생활하는 무의탁 독거노인들께 심리적·정서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서비스 품질 강화 및 노인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도모하고자 계획됐다.

생비랑면은 이번 행사를 통해 취약계층 독거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내실화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보호 지원강화로 복지체감도가 향상되고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원경복 기자>

(10.8*14.8)cm